서울 낭서 초등학교
6학년 7반 62번
정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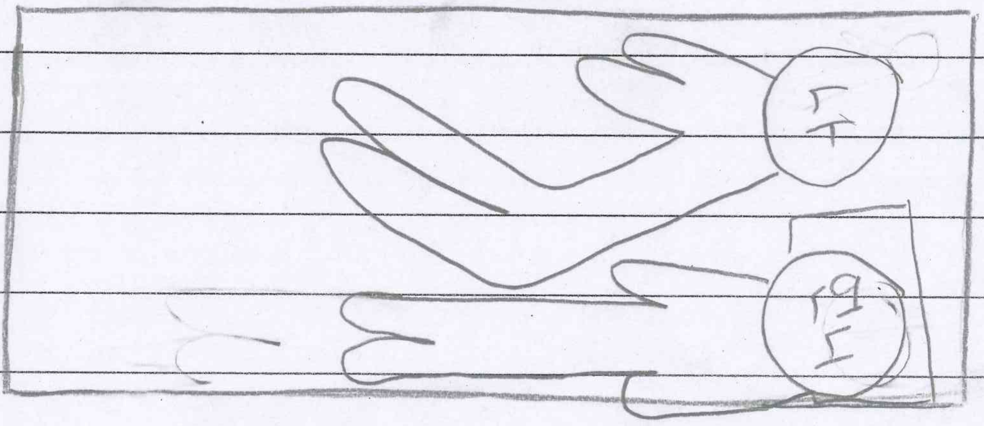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햇님이 기분 좋구나

제목 : 너무 피곤해!

아침부터 너무 피곤 했다. 나랑 가장 친한 가현이 언니가 우리집에서 같이 잤다. 언니는 무서움이 많다. 그래서 혼자서는 못잔다. 침대는 1인용인데 가현이 언니가 무서워 해서 결국 1인용침대에 2명이 같이 잤다. 아침밥은 내가 빵으로 피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언니가 배탈이 났다. 언니는 성당을 가야하고, 나는 교회를 가야했다. 결국 둘다 늦어서 엄청나게 뛰어 갔다.

교회에 갔다. 늦어서 뛰어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ㅠ_ㅠ 뛰어 가지 말걸~ 나는 찬양대 라서 연습 하고 예배드리고 다시 집에왔다.

우리집에는 어제부터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지리산 데이트를 가셨기 때문이다. 어린이날 선물은 받았지만 두번째 선물인가보다.



← 침대